

Binchae

MAGAZINE



빈손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집니다
Fill Empty Hands, Fill Empty Hearts



빈손에서 시작되는 기적
나눔의 손길로 세상을 바꾸다

Hope in Empty Hands
Building Futures, One Hand at a Time

발행인_ 송동호

발행일_ 2025년 7월 18일

발행처_ 빈손채움

기획,편집,디자인_ 빈손채움

사진_ 송동호, 채종욱, 빈손채움

문의_ 빈손채움 02-2135-6765

Contents

WELCOME	4
PEOPLE	
정기이사회 개최	6
STORY 1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에티오피아	10
STORY 2	
경계 없는 사랑,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다	14
STORY 3	
그분이 이끄신 길, 베냉에 서다	18
STORY 4	
영양 파우더로 전하는 나눔의 가치	22
후원안내	26

빈손채움의 삶

글. 송동호 대표

내 책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성경적 재정 원리를 다루면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대계명의 실천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바로 공유, 나눔, 섬김이다. 이와 같은 실천은 성경적 교훈과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첫 번째 ‘공유’는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름이다(행2장).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공유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삶’을 실천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적신으로 왔고,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던지 그 모든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나눔’은 평균케 하는 원리를 따름이다(고후8:9,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하였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게 예루살렘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은혜(연보)를 공유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때 바울은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고, 존귀한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또한 우리 제자들은 그의 교훈과 삶을 따르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윤택게 하는 삶의 원리를 따름이다(잠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도우면 자신이 부요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를 윤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는 성경의 황금률이다.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하신 말씀의 실천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시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남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자신도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라 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유무상통의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과 함께하는 공유의 삶을 실천해 보자. 또한 평균케 하는 원리를 적용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해 보자. 또한 윤택게 하는 삶의 원리를 적용하여 섬김의 삶을 잊지 말자. 우리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저들의 빈손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픔을 겪는 날에 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빈 마음, 빈손을 채워 주실 것이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불의함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빈손채움’은 우리 단체의 이름만이 아니다. 우리 단체의 실천모토다.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내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땅한 삶이 아닌가.

Fill Empty Hands, Fill Empty Hearts

정기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3일, 빈손채움 본부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채종욱 이사장, 송동호 대표, 남궁현 부이사장, 김해영 이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역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빈손채움은 매년 2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주요 사역을 점검하고 예산 및 향후 계획을 결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회의는 지난 2월 13일, 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채종욱 이사장, 송동호 대표, 남궁현 부이사장, 김해영 이사, 최정원 간사가 참석하였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되어 본부 사업 보고 및 현지 사역 보고, 이사회 구성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는 채종욱 이사장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누가복음 2장 41-52절을 함께 묵상했다. 김해영 이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신앙의 순례로 삼았음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마음을 나눴다. 남궁현 부이사장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아차린 부모의 모습은, 종종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라고 고백했다.

송동호 대표는 “잃어버리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찾는 데는 긴 여정이 필요하다”라며 무뎠던 신앙의 감각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채종욱 이사장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하나님의 인증 자리임을 잊지 않고, 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역 보고 및 계획 공유

묵상과 나눔 후에는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송동호 대표는 2024년 상·하반기 사업 보고와 2025년 전체 계획을 공유했다. 본부는 기존 뉴스레터, 캠페인, 사역 보고 외에도 이러닝 컴퓨터 센터 확장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700대의 컴퓨터를 30여 개 선교지에 보급했으며, 올해는 1,000대를 35군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해영 이사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와 신학교 사역에서 이러닝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운영·유지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선교 현장에 유익한 도구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선교 현장 보고와 글로벌 확장

채종욱 이사장은 최근 아프리카 선교 사역 현장에서 온 기도편지들을 소개했다. 나이지리아 베뉴에 있는 오주 마을에서의 우물파기 지원, 커피 원두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와 삼륜차 보급, 의료 클리닉 활동 등이 주 내용이었다. 커피 생산과 운송 인프라가 부족했던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결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이러닝 교육 사역의 니즈가 높은 편인데 지난해 후원 받은 컴퓨터는 총 700대로 오주 마을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선교지 30군데에 돌려보낼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올해 목표는 1,000대를 선교지 35군데에 돌려보낼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지로 확장될 예정이다. 웨인박스(WainBox)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는 미술·수학·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포함하고 있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빈손채움 지부 설립이 추진 중이며,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션 필드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역과 더불어 메가 펀딩 유치를 위한 기도와 준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했다.

단체의 다음 단계를 위한 제언

단체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 이사진 보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송동호 대표는 “단체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후원자 개발과 이사진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으며 새로운 이사진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새로운 이사진 충원에 대해 모두 동의 재청하고 폐회를 선언하고 마무리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빈손채움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었다. 빈손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진다는 진실한 고백이 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새기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STORY 1

주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에티오피아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출발 3일을 앞두고 에티오피아에서 방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구하며 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글. 채종욱 이사장

2024년 10월, 나이지리아 사역을 마치고 곧장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출발 3일을 앞두고 에티오피아에서 방문 요청이 왔습니다. 돌아가는 경로에 있는 곳이었고, 다시 방문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구하며 기대함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비자 신청에는 3일이 걸리지만, 만약 그 안에 비자가 나오면 티켓을 변경해서라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날 비자가 나와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홈리스 사역

Fedel 목사님은 아디스아바바에서 홈리스 사역과 싱글맘 사역을 하며 청년들에게 컴퓨터 교실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GHNI 에티오피아 마을 개발 책임 사역자입니다. 전자도서관과 컴퓨터 학교를 위해 가져간 크롬북은 공항 세관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또한 아디스아바바 근교의 펠로십 교회에서는 매일 홈리스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급식 전에 찬양과 헌신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통해 1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교실 사역

이곳에서도 처음으로 컴퓨터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10대의 컴퓨터와 1대의 서버로 시작했으며, 앞으로 차츰 그 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곳은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컴퓨터를 통한 학습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로 세워졌습니다.

컴퓨터 교실은 성인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디스아바바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며, 수많은 빈곤층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배회하며 가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어린이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컴퓨터 교육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성 교육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며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성 직업훈련센터 사역

이곳에서는 가정주부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소득이 가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거나 낭비되는 경우, 주부들이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부들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 지원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센터를 열고,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Fedel 목사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으며, 모두가 큰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3일간 머무르는 동안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사역 이야기를 공유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2월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었습니다.



STORY 2

경계 없는 사랑,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다

지난 2월, 채종욱 이사장은 나이지리아 Ogori, Itakpa Ito, 코트디부아르를 방문했습니다.

테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마을을 방문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후원으로 이뤄진 열매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글. 채종욱 이사장

나이지리아의 치안은 주변 국가보다 테러의 위험이 훨씬 큰 곳이라서 항상 무장된 경찰관과 동행해야 합니다. 수도 아부자에서 오주 마을까지 가는 길은 지난해 방문했을 때보다 환경이 좋아져 약 1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을 9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오주 마을에 세워진 컴퓨터 교실은 후원자님의 기도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에 대한 피드백과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훈련센터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gori Community 방문

Ogori에는 벵가 목사의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David 선교사 부부가 15년 전 이곳에 'Royal Glorious School'을 설립했습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이 학교는 현재 약 300명의 학생이 초등 교육을 받는 소중한 배움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선교사 부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숙소에 뱀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위해 컴퓨터 교실과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Ogori 마을로 가는 길은 험한 편이라 차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에는 마을로 접근하기가 어려워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교회 바울선교회에서 후원한 선교 헌금은 Akure의 Tayo 선교사와 이곳의 David 선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헌금은 척박한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Itakpa Ito Community 방문

Itakpa Ito Community에는 약 1,300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지만,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우물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1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 강물을 길어 와야 하며, 이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오염되어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깨끗한 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깨끗한 물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들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온 마을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물 설치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식수 문제와 함께 생활을 위해 카사바 가공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공장 대지를 확정하면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우더로 시작해서 전분가공품을 수출하는 단계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모두 5명의 투자자들이 회의와 농장주들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의논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방문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코트디부아르 아비잔까지는 원래 1시간 20분 거리였지만, 항공기 지연과 비행 중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바람에 10시간이나 걸려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9시간에 걸친 긴 여정을 거쳐 Man군의 Teh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라 익숙한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전통 의상을 입혀 주며 양과 닭, 쌀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보답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주 빈손채움에서 커피 운반과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해 삼륜차와 커피 가공 기계를 기증하였습니다. 이 기증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며,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광교회의 후원으로 마을의 오랜 염원이었던 우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개의 업체와 상담한 끝에 가장 적합한 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드디어 3개월간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10월에 다시 마을을 찾을 때는 우물 완공을 축하하는 큰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필요를 접했지만, 모든 곳에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그 기쁨을 후원자님들께 전할 날을 기대합니다.



STORY 3

그분이 이끄신 길, 베냉에 서다

지난 3월, 에티오피아 베냉의 수도인 코토누 마을의
교육 환경 및 식수 해결을 위한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삶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보며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글. 채종욱 이사장

베냉의 수도 코토누에 도착해 사역자 아비아달 내외분을 만난 후 숙소를
찾아갔지만, 도로 공사로 인해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로
가다 보니 2시간 동안 길을 헤매게 됐고 마침 길에서 자고 있던 사람을 깨워
가까운 호텔을 물어 결국 새벽 2시에야 숙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날 코토누 마을 지도자들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필
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아비아달 사역자는 보히콘 주변 여러 마을에서 진
행되는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
며 다양한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특히 컴퓨터 교실 운영과 우물 파
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에 더 나은 컴퓨터 시설이
마련되기를 원했으며, 지표수가 아닌 반석 아래에서 솟아나는 깨끗한 샘물
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발을 딛다

Fidel 목사님은 GHNI의 지역장으로서 아디스아바바를 비롯한 여러 지역
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숙자와 싱글맘을 돕는 것은 물론,
BAM(Business as Mission)을 통해 봉제, 미용, 컴퓨터 교실, 양봉 등 다양한 직
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작한 양봉 사업은 이미 수익을 내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신속한 실행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
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컴퓨터 교실은 배우려는 어린이들이 많아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에티오피아의 E-Library Learning Center로 자리 잡아 마을학교와 단체에 보급하는 허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컴퓨터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큰 반응을 얻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성인들은 컴퓨터 기술을 익혀 취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컴퓨터를 기증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GHNI 오피스 복도에는 <Jesus Christ Film>을 상영했던 최초의 영사기와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영사기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가 방영되었고, 이를 통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사기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한 위대한 전도자의 헌신을 떠올리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You are my chosen instrument”(사도행전 9:15)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다

매주 월요일, 약 50명의 싱글맘과 노숙자들이 모이는 방에 들어서자 익숙지 않은 모습과 냄새에 당황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날은 말씀 대신 짧은 스킷을 준비했습니다. 피델 목사가 예수님 역할을, 저는 하나님 역할을, 그리고 참석자 중 한 분이 죄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극의 클라이맥스에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은 돌아서서 죄인을 안아 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두 감격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주님께 쓰임 받는 기쁨 앞에서는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 깊은 기쁨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ORY 4

영양 파우더로 전하는 나눔의 가치

빈손채움은 지난해 큰 홍수 재난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북부 비하르 지역 마을과 낙타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영양 파우더를 통한 구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인도 영양 파우더 공급 지역

	지역 및 학교명	배분 수량(박스)
1	SEIS학교	125
2	친베리아 학교	125
3	낙타섬 마나스 마을	75
4	낙타섬 살할리 마을	50
5	낙타섬 강하라 마을	75
6	웨스트 째빠란 지역	100
7	빨리간지 천사의 집	50
8	북부 비하르 홍수 피해 지역	150



글. 헤세드사회교육재단 정은경 이사

지난해 인도 북부 비하르 지역에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홍수 피해가 잦은 지형이라 우기가 시작되면 마을 주민들도 불안해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발생한 홍수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영양 파우더를 통한 구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채종욱 이사장님이 인도에 직접 방문해 주셨고 보내주신 기부금 USD 6,000과 5월 27일에 YGL Food & Trading을 통해 보내주신 USD 3,000, 총 USD 9,000을 GBM Networks회사의 공장에서 총 750박스(총 7,500봉지)를 생산하여 비하르 지역의 홍수 피해 재난 지역과 도움이 필요한 여러 마을에 표와 같이 배분하였습니다.

인도의 가장 열악한 비하르 주에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마을 어린이들과 여성 및 노약자들 1,500여 명에게 영양파우더를 지원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양파우더 음료를 마시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어쩌면 하루 마실 수 있는 작은 한 끼 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섬겨 주시는 후원자님들 모두 축복합니다.

SEIS 학교



낙타섬 강하라 마을



친베리아 학교



빨리간지 천사의 집



낙타섬 마나스 마을



웨스트 잠빠란 & 북비하르 홍수 피해 지역



낙타섬 살할리 마을



빈손채움 후원

○ 정기 후원

특정 후원 항목과 금액을 정해 매달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정기후원에 참여해 보세요.
미션펀드를 이용한 후원금 송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시 후원

가장 도움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곳에 일시로 후원해 보세요.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후원

특별헌금 : 특별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헌금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1:1 결연 : 식량지원 학교 혹은 MVC를 통해 마을과 1:1 결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빈곤퇴치 주일 지키기 :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전후해서 빈곤퇴치 주일로 지킵니다.
무통장 입금계좌(예금주: 빈손채움 송동호) 신한은행 140-014-398508

빈손채움 USA 후원

○ 기부 방법

개인체크 : 받는 사람을 'Binchae Foundation'으로 하여
아래 Binchae USA 오피스 주소로 보내주세요.
은행송금 : Chase Bank, Acct : 929785538 / Routing : 021000021

○ 기타 후원 및 참여 문의

Binchae USA Office
주소 : 249-68 57th AVE. Little Neck NY 11362
전화 : +1 (515) 230-7367
이메일 : binchaespark@gmail.com



후원 및 참여 방법

빈손채움은 가뭄, 질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사회에
우물 만들기, 학교 도서관 개설, 영양과우더 제공 등의
식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 사업을 통해
생명의 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빈손을 채워주세요.
빈손채움의 후원자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흘려 보내주세요.



“빈손을 채우면 마음도 채워집니다”



Binchae



www.binchae.org